

무형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인식에 관한 실증적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Citizens' Awareness of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오정심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소

Jung-Shim Oh(ruaths0802@naver.com)

요약

2012년의 조사에 따르면 중요무형문화재의 27.6%가 전승 단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정부의 한정된 지원 문제와 국민의 무관심 그리고 사회적 수요의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원 및 사회적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기·예능 보유자들과 전승자들이 전승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전승활동을 포기하거나 기·예능을 배우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의식수준을 제고하고 수요를 활성화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와 관련한 부분보다 전승자의 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요 측면에서 기존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및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실증적 조사를 통해 수요자인 시민의 인식수준과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수요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무형문화유산 | 무형문화유산 정책 | 자생력 | 의식조사 | 수요 활성화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that transmissions of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Korea may be cut off because of the public indifference, low demand for it and lack of government funding and seek ways to revitalize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increasing citizens' awareness of it and demand for it. According to recent studies, many holders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have a difficulty doing because government funding is not enough to make their living and people who want to learn and pass on traditional skills keep decreasing. Many experts say that governments need to increase citizens' awareness of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demand for it in the long run to solve this problem, but governments focus on improving condition of holders rather than that. On this account, this study criticizes the government's policy and surveys citizens' awareness of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demand for it and suggests a plan of revitalizing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keyword :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 Self-Recovery | Attitude Surve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Increasing consumer demand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I. 서론

오늘날 국가의 주도로 보호,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은 본래 일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전통사회의 수요와 공급,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자생적으로 생산·발전되던 것이었다. 또한 ‘기·예능 보유자’ 또는 ‘전승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전통사회에서 예술가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행위 속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창작·표현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이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을 향유하였다[8][10].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일제강점기와 근대 도시화 및 공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그 모습이 변화되었다[13]. 해방 후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무형문화유산이 근대 공업화 및 도시화의 파고 속에서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를 막아 내고자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고 관련 제도를 만들었다. 문제는 무형문화유산 제도가 당시 근대 민족국가의 질서를 창출하는 작업에 참여했던 행정 관료와 지식인들에 의해 만들어짐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이 민족문화의 원형이자 정수(精髓)로 상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보존·관리해야할 대상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통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생산·향유·전승활동에 주체적인 역할을 하던 예술가와 일반 백성들은 정부 시책에 참여, 협조하는 대상으로 변화되었다[17][18].

지금까지 국내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근간으로 하여 정부의 주도 아래 보유자와 국민이 참여 또는 협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방식은 근대시대에 소멸될 위험에 처했던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는 무형문화유산이 보호·전승될 수 없는 체계가 구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요무형문화재의 27.6%가 전승 단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23]. 이러한 상황은 시·도무형문화재의 경우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충청권의 60%, 경기권의 47%의 무형문

화재가 전승 단절 위기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정부의 한정된 지원 문제와 국민의 무관심 그리고 사회적 수요의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24-26].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보유자 및 전승자들이 전승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전승활동을 포기하거나 기·예능을 배우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의식수준을 제고하고 수요를 활성화하여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와 관련한 부분보다는 전승자의 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2012년에 문화재청에서 발표한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4,459억 원을 투입하여 전승지원금 상향 지급, 체계적인 전승자 관리, 전수교육관 개선, 공개행사 활성화 등과 같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5]. 전승 단절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수요 활성화 및 시민 육성과 같은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은 이와 관련한 부분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여 전승자의 여건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및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무관심, 사회적 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한 무형문화유산 전승 단절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수요 활성화 및 시민 육성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무형문화유산 관련 국내 연구에는 최초의 학술논문이 검색되는 1969년부터 현재까지 약 1,000건 이상의 논문이 있다. 이 논문들을 주요 키워드로 검토한 결과 선행연구로 「한국 무형문화재 제도의 성립 : 그 사회적 조건에 관한 연구(정수진, 2003)」, 「한국 무형문화재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송준, 2009)」,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방향의 재인식(임재해, 2009)」 등이 집약됐다. 이 연구들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국가적 보존·관리의 대상이 아닌 생산자의 지식과 행위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며, 일반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전승되고 공급과 수요의 관계 속에서 발전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7][17][18]. 또한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유산을 국가 차원에서 보존·관리하는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이 생산자와 일반 대중 그리고 사회 환경과 멀어지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17].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활성화를 위해 현재 대중성을 상실한 화석화된 방법이 아닌 변화와 발전을 가능케 하는 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8][16].

「무형문화재 공연상품 소비자의 욕구 및 동기와 만족 간의 관계 분석(이정호, 2009)」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그동안의 정책 및 제도가 공급 측면에 편중되었고 수요 측면에서 국민(관객)과 관련한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상황에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 시민단체의 참여활성화 방안연구(윤인향, 2006)」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유산 영역을 국가의 독점영역이라고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문화유산을 국가만의 영역이라고 잘못 인식하게 되는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선행연구들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생산자인 보유자와 수요자인 일반 시민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시민 역할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점은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연구내용이 이론적 고찰에 집중되어 있고 실증적 분석내용이 부족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한계점을 보완하여, 수요자인 일반 시민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 정책 및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및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목적은 국민의 무관심, 사회적 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한 무형문화유산 전승 단절 위기현상을 주

1.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관련 설문조사를 다룬 연구에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문화재청, 2012)」 등이 있으나 유형문화재, 기록유산 등을 포함한 문화유산 전반에 관한 조사이며 무형문화유산에 집중된 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목하여,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수요 측면에서 국내 정책 및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수요 및 향유 계층인 시민들의 실증적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첫째, 문화재보호법을 비롯한 무형문화유산 관련 기관의 주요 정책내용을 검토하였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마케팅 이론을 활용하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과 시민들이 무형문화유산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시장 및 수요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소비자 인식, 구매 장애요인 등을 파악하여 전략을 마련한다[6]. 여기서 장애요인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 방해가 되는 요인을 말하며 시장 축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한다. 장애요인은 크게 ‘인식 장애’, ‘장소 장애’, ‘시간·비용 장애’, ‘소유 장애’ 등으로 구분한다[9].

표 1. 설문 측정도구 구성

구분	설문내용	문항수
일반	성별	3
	연령	
	경력 유무	
인식 수준	중요성 인식정도	4
	관심도	
	인지도	
장애 요인	국내 정책 문제점 의견	4
	인식 장애(이해하기 어렵다)	
	장소 장애(장소적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시간·비용 장애(시간·비용적 어려움이 있다)	
	소유 장애(나와 상관없는 것이며 소유·경험하고 싶지 않다)	
합계	11	

설문조사는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14년 7월 16일부터 2014년 7월

2. 본 논문은 수요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써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로 연구와 설문을 진행하되 응답자의 이해와 설문을 돕기 위해 설문지에 무형문화유산의 예로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관소리 심청가’, ‘별신굿’, ‘아리랑’, ‘전통한복(장인의 전통적 기술 및 바느질로 만든 한복)’ 등으로 제시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2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다. 설문을 위한 표본선정은 무작위추출방식을 통해 추출하였으며 설문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변수들의 결정을 위한 설문응답은 명목척도와 리커트 5점 척도(1점 매우 아니다, 2점 아니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설계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대면만남, 전자우편, SNS를 통해 200부를 배포하여 175부를 회수했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잘못 표기한 8부를 제외한 167부를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분석은 SPSS ver22.0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량을 분석하기 위한 빈도분석과 응답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심도, 장애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독립표본 t 검증, 일원변량분석, 집단 간의 차이를 사후검증하기 위한 Scheffe검증, 관심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분석을 위한 단순 회귀분석을 등을 실시하였다.

II.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52.1%, ‘남성’이 47.9%로 비슷한 성별비율을 보였다. 연령은 ‘30대’가 45.5%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7.5%, ‘20대’가 21.0%, ‘50대 이상’이 6.0%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측정항목		N	%
성별	남	80	47.9
	여	87	52.1
연령	20대	35	21.0
	30대	76	45.5
	40대	46	27.5
	50대 이상	10	6.0
경험	경험 있음	66	39.5
	경험 없음	101	60.5
합계		167	100%

다음으로 ‘무형문화유산 관련 공연 및 전시를 보거나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60.5%가 ‘경험이 없다’, 39.5%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해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수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 인식정도’와 ‘인지도’, ‘관심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중요성 인식정도’ 항목에서 무형문화유산이 ‘매우 중요하다’와 ‘중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67.7%, 28.7%로 나타나 응답자의 10명 중 9명 이상(96.4%)이 무형문화유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심도’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52.7%가 ‘보통’이라고 대답했으며 12%와 2.4%는 각각 ‘관심이 없다’와 ‘관심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인지도’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0.9%)이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고 30.5%가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다.

분석결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 인식정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관심도’가 저조하고 ‘인지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측정됐다.

표 3.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수준

측정항목		N	%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	아니다	2	1.2	4.629	.5961
	보통이다	4	2.4		
	그렇다	48	28.7		
	매우 그렇다	113	67.7		
관심도	전혀 없다	4	2.4	3.246	.8606
	없다	20	12.0		
	보통이다	88	52.7		
	있다	41	24.6		
인지도	매우 있다	14	8.4	1.910	.7591
	전혀 모른다	51	30.5		
	모른다	85	50.9		
	조금 안다	26	15.6		
잘 안다		5	3		
합계		167	100%	-	-

다음으로 무형문화유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 의견을 물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32.3%가 ‘대중의 무관심’을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18.8%가 ‘홍보 및 정보 부족’이라 대답했고, 16.0%와 13.5%가 각각 ‘기·예능 보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부족’, ‘학생 및 시민 대상 교육기회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앞서

살펴본 저조한 경험도와 인지도 조사결과와 원인으로 ‘대중의 무관심’, ‘홍보 및 정보 부족’ 그리고 ‘교육기회 부족’ 등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겠다.

3. 무형문화유산 관련 활동 참여 장애요인 분석

시민들이 무형문화유산 관련 활동의 참여를 결정하거나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조사는 ‘인식 장애’, ‘장소 장애’, ‘시간·비용 장애’, ‘소유 장애’ 부분으로 나눠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식 장애’ 항목에서 조사대상자의 61.7%가 무형문화유산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대답해 10명 중 6명은 무형문화유산을 이해하거나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소 장애’ 항목에서 응답자의 78.5%가 장소적 접근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대답해 응답자의 10명 중 7명 이상은 무형문화유산을 어디에서 접할 수 있는지를 모르거나 장소적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유 장애’에서 응답자의 31.1%가 보통수준에서 무형문화유산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대답했고 28.7%가 ‘그렇다’, 8.4%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반면에 ‘시간·비용 장애’에서 응답자의 39.5%가 ‘보통이다’, 24.6%와 8.4%가 각각 ‘아니다’, ‘전혀 아니다’로 대답해 시간 및 비용적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성별’, ‘연령’, ‘경험유무’에 따라 ‘장애요인’의 응답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별’과 ‘인식 장애(t=.253, df=165, p>0.05)’, ‘장소 장애(t=.962, df=165, p>0.05)’, ‘시간·비용 장애(t=.538, df=165, p>0.05)’, ‘소유 장애(t=-.030, df=163, p>0.05)’ 응답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3. 현재 무형문화유산 관련 업무는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에서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홍보가 홈페이지 및 블로그 게재, 창덕궁 등 4대궁과 유관기관 홍보지 배포, 기존고객 문자 발송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평소에 무형문화유산을 자주 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관련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한국문화재단의 ‘전통공예디자인 강좌’,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문화재수리기술강좌’ 등과 백화점 문화센터의 문화강좌 등이 있다. 백화점 문화센터 등의 교육은 단기간의 비전문적인 교육이 대부분이고 한국문화재단의 교육은 일년에 한두 차례 소수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험유무’에 따른 응답의 차이 분석결과 ‘인식 장애(t=2.802, df=114.241, p<0.05)’, ‘소유 장애(t=-.030, df=163, p>0.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무형문화유산 관련 경험이 적은 사람일수록 장소적 접근에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무형문화유산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며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더욱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4. 경험유무와 장애요인 응답차이

측정항목		평균	표준 편차	t	df	p
인식 장애	경험있음	3.66	.852	1.648	165	.101
	경험없음	3.42	1.009			
장소 장애	경험있음	4.06	.074	2.802	114	.006
	경험없음	3.67	.119			
시간·비용장애	경험있음	2.93	.930	.633	165	.527
	경험없음	2.83	1.032			
소유 장애	경험있음	3.29	1.013	3.257	165	.001
	경험없음	2.71	1.106			

마지막으로 ‘연령’이 ‘장애요인’ 응답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식 장애(F=2.835, df=3, p<0.05)’, ‘장소 장애(F=3.294 df=3, p<0.05)’ 항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Scheffe검증방법을 통해 사후검정한 결과, ‘장소 장애’ 항목에서 ‘20대(평균=4.20)’와 ‘50대(평균=3.30)’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20대가 50대보다 무형문화유산의 장소적 접근에 어려움을 더욱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5. 연령과 장애요인 응답차이

측정항목		평균	표준 편차	F	df	p	에타 지수	집단 차이
인식 장애	20대	3.89	.900	2.835	3	.040	.050	
	30대	3.53	.916					
	40대	3.52	.836					
	50대이상	3.00	1.155					
장소 장애	20대	4.20	.719	3.294	3	0.22	.057	20대/50대 이상
	30대	3.89	.842					
	40대	3.83	.877					
	50대이상	3.30	1.059					
시간·비용 장애	20대	3.06	.906	.672	3	.570	.012	
	30대	2.86	1.016					
	40대	2.89	.924					
	50대이상	2.60	1.075					

소유 장애	20대	3.11	1.157	.257	3	.856	.005
	30대	3.04	1.076				
	40대	3.11	1.100				
	50대이상	2.80	.919				

4. 무형문화유산 관심도 영향요인 분석

소비 및 향유계층으로서 일반 시민은 무형문화유산 소비 및 향유 활동을 결정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중에서 관여도 즉 관심도는 시민의 태도 형성 및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6].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무형문화유산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여 단순 회귀분석과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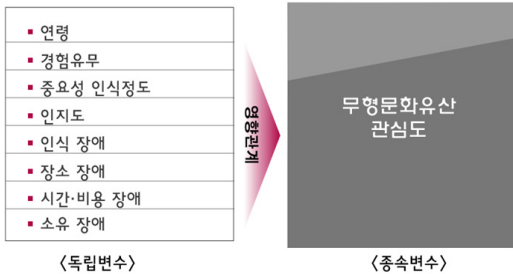


그림 1. 단순 회귀분석을 위한 연구가설

‘연령’과 무형문화유산의 ‘관심도’ 간의 단순 회귀분석결과 ‘연령’이 ‘관심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5.506, df=1 p<0.05). 즉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베타=.180). 그리고 ‘기존 경험유무’와 ‘관심도’ 간의 독립표본 t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이 0.05이하로 측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878 df=141 p<0.05). 즉 ‘경험 있는 그룹’과 ‘경험 없는 그룹’의 평균값이 각각 3.62와 3.00으로 무형문화유산 관련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와 ‘인지도’가 각각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요성 인식정도’와 ‘인지도’ 각각은 ‘관심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요성

인식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관심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으며(베타=.472),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베타=.384).

표 6. 중요성 인식정도 및 인지도와 관심도 간의 회귀분석

구분	베타	t	df	F	p	R ²
중요성 인식정도	.472	6.884	1	47.386	.000	.223
인지도	.384	5.348	1	28.606	.000	.148

마지막으로 ‘장애요인’과 ‘관심도’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식 장애’, ‘장소 장애’, ‘시간·비용 장애’, ‘소유 장애’ 모두가 ‘관심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각각의 베타 값이 -.291, -.237, -.151, -.448로 측정되어 ‘인식 장애’, ‘장소 장애’, ‘시간·비용 장애’, ‘소유 장애’를 덜 느낄수록 ‘관심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7. 장애요인과 관심도 간의 회귀분석

구분	베타	t	df	F	p	R ²	
장애요인	인식장애	-.291	-3.909	1	15.280	.000	.085
	장소장애	-.237	-3.133	1	9.814	.002	.056
	시간·비용 장애	-.151	-2.219	1	4.925	.028	.029
	소유장애	-.448	-8.779	1	77.077	.000	.318

III. 결론 및 과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무형문화유산 전승 단절 위기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래 무형문화유산이 일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전통사회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자생적으로 생산·발전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여, 현재 정부의 주도로 무형문화유산이 보호·전승되는 제도적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나아가 실증적 조사를 통해 수요자인 시민의 의식수준과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수요 활성화 및 제도적 개선방향을 고찰하였다.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시민의 인식수준 분

석결과 중요성 인식정도는 매우 높게 나왔지만 관심도와 인지도 그리고 경험도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현재의 정책 및 제도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 내는데 영향을 끼치는 인지도, 관심도, 경험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이와 관련한 기존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 시민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활동 참여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10명 중 6명은 무형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0명 중 7명은 무형문화유산을 어디에서 접할 수 있는지 모르거나 장소적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10명 중 7명 이상은 무형문화유산을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 방식, 대중적 콘텐츠 개발 등의 정책 및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에서 시민을 정부시책의 협조자로 규정하여 관련 제도가 운영된 것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인다.

설문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관심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관심도는 무형문화유산 관련 활동의 참여여부를 결정짓는데 주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다. 분석결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 인식정도, 인지도, 경험도가 높을수록 관심도가 상승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관심도가 낮고 인식 측면, 장소적 측면, 시간·비용적 측면, 소유 측면에서 장애요인을 덜 느낄수록 관심도가 상승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저조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첫째, 현재의 소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식 측면, 소유 측면에서의 장애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무형문화유산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대중적 콘텐츠의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인식수준이 저조한 젊은 세대들에게 우선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형문화유산을 기존의 민족문화의 원형 개념으로 인식

하는 것에서 벗어나 일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사회의 수요와 공급,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자생적으로 생산·발전하는 개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수요자인 일반 시민 측면에서 기존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및 제도가 보완되어 운영된다면 무형문화유산의 수요 활성화 및 선순환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을 찾고 즐기는 사람이 증대됨으로써 시장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생산자가 늘어나 무형문화유산을 재생산하는 등의 선순환적 발전의 흐름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정원, “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에너지중목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8집, 제1호, pp.139-168, 2002.
- [2] 김광희,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3] 김민주, *컬덕 시대의 문화마케팅*, 미래의 창, 2005.
- [4] 리차드 쿠린,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2003년 협정 이행을 위한 핵심 요소”, 국제저널 무형유산, 제2호, pp.9-16, 2007.
- [5] 문화재청,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 종합계획*, pp.1-41, 2012.
- [6] 박영봉, *소비자행동론*, 학현사, 2007
- [7] 송준, “無形文化遺産의 保存과 活用に 대한 小考: 전형(典型)의 개념을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제17호, pp.217-241, 2008.
- [8] 송준, *한국 무형문화재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9] 신병철, *쉽고 강한 브랜드 전략*, 살림, 2004.
- [10] 오정심, *생태학적 관점에 입각한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전승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11] 위주영, *한국 전통공예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12] 윤인향, “문화재보호 시민단체의 참여활성화 방

안연구”, 문화재학, 제3호, pp.365-416, 2006

[13] 이문호, “한국의 근대화와 한국 전통춤의 자생력 상실 배경: 사회학적 접근”, 공연문화연구, 제15호, pp.209-240, 2007.

[14] 이장렬, 한국 무형문화재정책 연구: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5] 이정호, 무형문화재 공연상품 소비자의 욕구 및 동기와 만족 간의 관계 분석, 추계예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6] 임재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방향의 재인식”, 비교민속학, 제39호, pp.439-491, 2009.

[17] 정수진, 한국 무형문화재 제도의 성립: 그 사회적 조건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8] 정수진, “근대 국민국가의 문화재 창출”, 韓國民俗學, 제46집, 제1호, pp.343-373, 2007.

[19] 최종호,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연구”, 문화재학, 통권 제2호, pp.33-61, 2005.

[20] Lucas Lixinski,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1] Noriko Aikawa, “An Historical Overview of the Preparation of the UNESCO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useum International*, Vol.56, pp.137-150, 2004.

[22] Richard Kur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 critical appraisal,” *Museum International*, Vol.56, pp.66-77, 2004.

[23] http://www.news1.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20925_0011474482

[24]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8087>

[25]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87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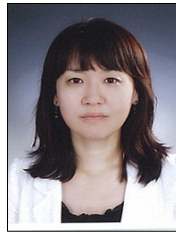
[26]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78558>

[27]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4836>

저 자 소 개

오 정 심(Jung-Shim Oh)

정희원



- 2004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석사)
- 2015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박사)
- 2011년 ~ 현재 :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 무형문화유산, 뮤지엄 콘텐츠, 신한류